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8-262 |
|----------|-------|

발의년월일 : 2019. 10. .

발 의 자 : 유재수 의원 등 21명

1. 주 문

- 정부는 2019년 5월 7일 안산 장상동, 신길동 일대가 포함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지역 참여형 개발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안산에 공급 예정인 장상, 신길2 택지지구가 지역 여건이 반영된 지역 참여형 신규택지로 조성되기 위해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안산도시공사의 실질적 참여를 위하여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 확대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다양한 민원 발생, 교통 정체, 개발이익의 타지역 유출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되었음.
-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조성계획 중인 장상, 신길2 택지지구는 반월신도시, 고잔신도시, 신길택지지구 등 안산시 과거의 개발 사례들과 같이 정부와 국가공기업 주도의 하향식 일률적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여건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사업 지분 확대를 건의함.

3. 건의안 : 덧붙임

4. 이송기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9년 5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안산의 장상동, 신길동이 포함되어 각 13,000호, 7,000호, 총 2만호의 공공주택이 안산시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신규택지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안산시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는 장상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시공사와 신길2지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안산시는 80년대 반월신도시 조성, 2000년대 고잔신도시와 신길택지 지구의 조성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획일적 개발 방식을 경험한 바 있으며, 개발 과정 중 민원 발생, 일률적인 도시 디자인,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새롭게 계획되는 장상지구, 신길2지구 택지조성 시에는 과거에 경험 하였던 문제를 답습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의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면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안산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점 도래로 인하여 다수의 공동주택이 재건축 되었고, 일부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금번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조성 예정인 장상, 신길2지구의 택지개발로 총 2만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주택 물량 과다로 인한 지역 주택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상지구, 신길2지구 택지 조성을 통해 발생된 개발이익은 택지 조성 해당지역인 안산시에 적극 재투자되어야 하며, 개발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기존 구도심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정비, 노후 주택 매입, 주택 정비사업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택지 조성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투자를 위하여 안산시 의회는 안산도시공사가 신규 택지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적극 참여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장상지구와 신길 2지구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의 지분참여를 20% 이상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19. 10. 25.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